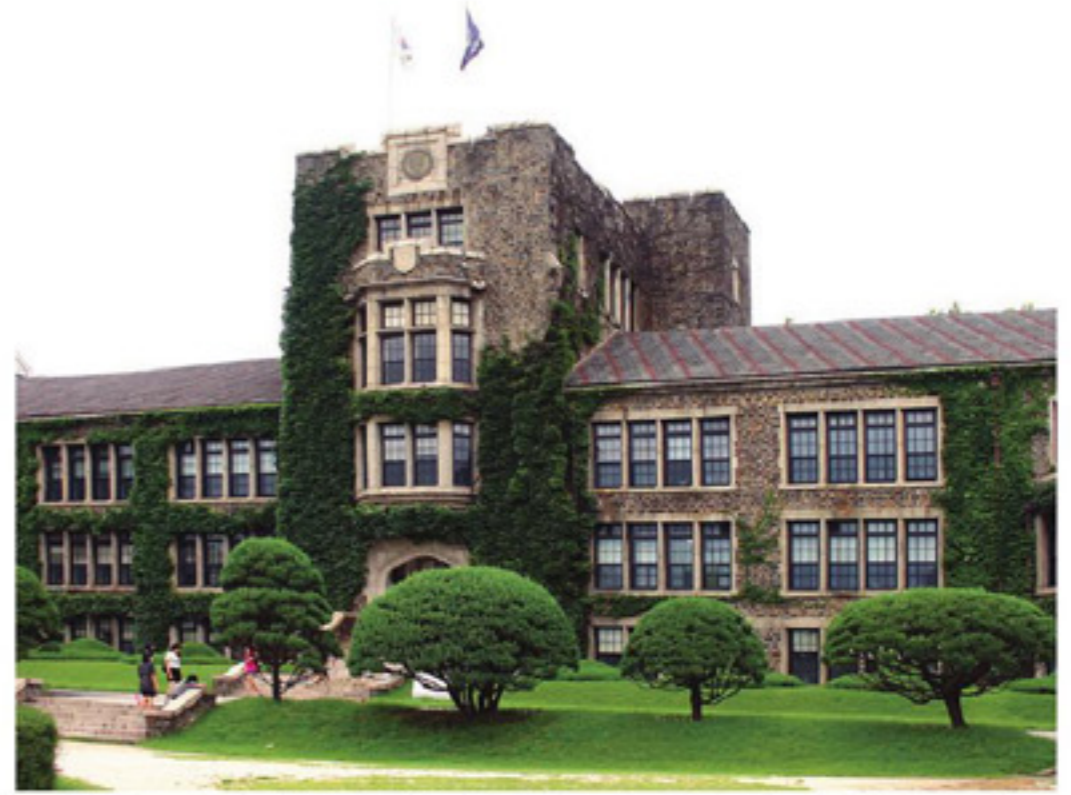


서양 고딕양식에 새겨진 민족의 정기



1934년 완공된 보성 신교사(모교 본관, 왼쪽사진)는 1925년 완공된 언더우드관(오른쪽)을 비롯한 연희전문 의 건물들과 비교해 흥미로운 차이점을 보인다. 작은 규모의 언더우드관이 미션계 학교의 청빈한 정신과 질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성 신교사는 민족사학 백년대계의 포부를 담은 큰 규모에 회백색 화강암을 직교해 전통 창조문양의 독특한 양식을 적용했다.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5

안암동 시대의 개막과 고대 석탑의 발흥: 보성전문의 신교사 1933.9~1934.9 (하)

안암동 신교사가 석조여야 한다는 것이 인촌의 일관된 의지였다면, 고딕양식의 최종 선택은 건축가 박동진의 몫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1930년대 초의 글에서 이미 당시 유럽의 근대 합리주의 건축의 흐름을 습득하고 있음을 보였던 그가 과거 역사주의 양식을 채택한 것은 상당히 복고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양식에 대한 문제는 재료 선택에 종속된 결정이었다. 돌의 사용이 확정된 이상 여기에 맞는 양식을 찾아야 했는데, 근대주의 건축은 전혀 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대신 인촌이 방문했던 대학의 건물들이 당연히 중요한 원천이 됐다.

지난 호에 서술했듯 인촌과 박동진은 신교사를 설계하며 그 사진들을 참고했다. 이 건물의 설계를 위해 박동진이 특별히 어떤 건물에 영감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술한 대학들에는 유사 깊은 고딕(Gothic) 건축물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古代) 그리스·로마에 근간한 고전주의적(Classical) 건물 역시 다수 존재한다.

그 가운데 고딕계열의 건축물이 두 사람에게 더 끌렸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학의 시작은 중세 고딕시대 거슬러 올라가며, 거기서 종종 학문의 신성한 가치를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시찰 중 영국에서 1년을 머물렀던 인촌에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고딕 건물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한다.

고딕양식 드러내는 뾰족아치

이 건물을 고딕양식으로 분류하

게 만드는 주요 건축요소로 몇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무엇보다 1층 출입구를 비롯해 정면의 창호에 사용된 뾰족아치 개구부가 결정적이다. 서양건축사 가운데 뾰족아치는 동근아치가 특징인 로마네스크양식으로부터 고딕건축을 구별케 하는 기본 요소다. 그리고 중앙탑부 네 모서리의 부축벽(flat buttress)이 상부로 갈수록 얇아지는 점이나, 탑 최상부의 요철모양 여장(女牆) 역시 중세의 건축을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암의 신교사가 13세기 유럽의 성기 고딕양식(High Gothic Style)을 그대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 당시 건축의 전형적 특징으로 간주되는 리브볼트(rib-vault)나 플라잉버트레스(flying buttress)와 같은 요소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조되던 수직성 역시 여기서는 그다지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면은 납작한 H-자 형태의 엄격한 좌우대칭으로 고전주의적 권위마저도 머금는다. 입면 역시 중앙탑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며, 규모에 비해 전체 구성도 비교적 단순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히려 안암의 신교사를 르네상스로 전이되기 직전 영국 후기 고딕시기의 저택 건축물과 가깝게 한다. 따라서 이는 종종 거론되듯 영국 튜더양식(Tudor Style)과 결부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세워진 보성전문 본관이 16~17세기 영국의 건축흐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매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19세기 중반 이래 영미권에 서, 특히 미국에서 흥했던 대학

고딕양식(Collegiate Gothic Style)이다. 이것은 고딕부흥식(Gothic Revival)이라는 큰 흐름 후미에 속했던 경향으로서 펜실베이니아, 예일, 시카고, 프린스턴, 듀크 등 당시의 많은 대학들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모델로 하여 차용했던 스타일이라 하겠다.

호랑이머리·무궁화조각의 의미

보성전문의 신축 석조교사를 이미 존재하던 연희전문의 석조건물과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두 학교는 우리나라 양대



본관 출입구 아치에 조각된 호랑이 머리. 보성전문 학생들이 가졌던 역센 기상과 민족정신이 건축물의 디테일로 표출됐다.

사학의 축으로서 경쟁자이자 동료애를 가지고 성장해왔고, 보연전(현 고연전)에서 보드 스포츠를 통한 학생활동으로 민족의 지력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도교가 보성전문을 인수하기 이전인 1910년, 경영난에 처했던 보성전문은 연희전문의 설립자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보성전문의 재정확보를 위해 협상을 벌였다고도 전한

다. 1920년대 준공된 연희전문 의 스텐스관(1920), 아펜젤러관(1924), 언더우드관(1925)도 모두 튜더풍의 소박한 고딕양식을 띠고 있다. 허나 이들은 보성전문 신교사에 비해 규모 면에서 작다. 기독교 미션계 학교의 청빈한 정신과 민족사학 백년대계를 향한 인촌의 포부가 대비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두 학교 건물의 돌쌓기 방법 역시 이러한 차별적 기조를 유지한다. 연희전문 건물이 주변에서 채취한 운모편암을 이용한 막돌쌓기로 자유롭고 질박한 모습을 보였다면, 보성전문의 건물은 직각으로 다듬은 회백색 화강암을 서로 직교시켜 매우 정갈하게 쌓았다. 특히 일부의 돌을 세

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연희전문의 건물 이마나 창틀에 각인된 태극문양은 보성전문 신교사 정면과 배면 출입구의 호랑이 머리 및 무궁화꽃 조각과 대응된다. 보성전문 학생들이 가졌던 역센 기상과 민족정신이 건축물의 디테일에도 표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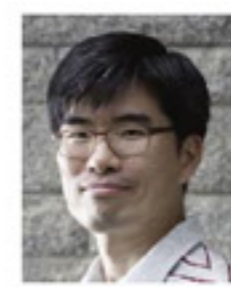
민족사학 웅비 보여준 이전행렬

안암동 신교사는 1934년 9월 27일, 1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됐다. 다음날인 9월 28일, 송현동 구교사에서 고별식을 행한 교수, 직원, 학생들은 교기와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財團法人 普成專門學校)'라 쓴 교문 명패를 선두로 세우고 안국동에서 종로를 거쳐 안암동까지 행렬했다. 이는 일제 관학의 허세에 맞서 민족사학의 웅비를 자축한 행사로서 장안의 화제였다고 한다.

신교사에 들어온 모든 이들은 곧바로 2층 강당(현 교무처 공간)에서 이전식을 거행했다. 안암동 시대의 개막이다. 이로써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불안정했던 보성전문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훗날 인촌은 일본인이든 서양인이든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안암의 석탑 앞으로 데리고 와 한국의 건축가가 설계한 한국의 대학이라 자랑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크게 탄복했다고 전한다. 이 건물은 사적 285호로 지정돼 국가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안창모의 연구에 의하면(建築家 朴東鎭에 關한 研究)

1997) 이는 '완자쌓기'로 명명된 벽체 패턴으로, 전통 창조문양에서 박동진이 창안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무척 중요한데, 왜냐하면 곧 이어질 도서관을 비롯한 고려대학교의 이후 건물에 계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